

Robert Vannoy 박사, Kings, 강의 4

© 2012, Robert Vannoy 박사,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열왕기 본문, 신명기 역사, 주요 강조점

마소라 본문(MT)과 칠십인역(70인역)의 열왕기 본문

그럼 본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한 내용은 15절부터 시작하여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자료는 제가 유인물에 올려놓은 한 입문용 유형일 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책의 이름, 일반적인 내용, 책의 구조, 저자, 출처, 작곡 연령에 대해 논의한 다음 13페이지에서 "텍스트"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텍스트 부분을 살펴보고 새로운 유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RK 해리슨의 *구약성서 소개에서는* 히브리어 왕조 본문에 수많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구성을 위해 70인역 역본이 매우 귀중한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소라 본문보다 짧으며 더 신뢰할 수 있는 차이를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LXX는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더 순수한 형태의 히브리어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단편들은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었으며, 마소라 본문의 기초가 되는 것보다 칠십인역의 기초가 되는 본문에 더 가까운 히브리어 본문이 한때 존재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둘 다보다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 왕국 붕괴에 대한 두 번째 기록으로 보이는 내용은 칠십인역의 열왕기 첫째 12:24 뒤에 삽입되었습니다. 이 책은 솔로몬의 죽음과

르호보암의 통치와 관련된 사건들을 서술하고, 열왕기상 11장과 12장의 자료를 일부 반복하여 여로보암의 반역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스위트는 이 보간법이 혼란의 두 번째이자 뚜렷한 후퇴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와 동일하게 히브리어 원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특별한 기록의 가치가 무엇이든 간에, 70인역과 때때로 그것의 루키아어 역본이 열왕기의 본문 연구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소 기술적 인 자료입니다. 나는 열왕기의 본문에 대한 논의에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열왕기의 본문은 어떤 면에서 사무엘서의 본문과 유사합니다. 분명히 전송 과정에서 텍스트에 약간의 오류가 들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칠십인역은 배경에 관한 한 다른 히브리어 전통에 기초를 두고 있고 현재의 히브리어 본문은 마소라 본문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본문 문제에 관한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은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도 매우 명백해 보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문제이며, 대부분의 경우에 당신이 마소라 본문보다 70인역을 더 선호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서의 본문이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받지 마시다. 나는 이러한 차이점이 대개 본문의 실질적인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관사와 히브리어 본문이 있는 명사가 있지만 칠십인역에는 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차이는 그런 종류의 매우 사소한 것이지만 차이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칠십인역이 더 나은 해석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해리슨이 일반적으로 열왕기의 본문 연구에서 70인역의 중요한 역할을 할당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하지만,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한 영역, 즉 연대기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의 연대기는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습니다. 분명히 칠십인역의 번역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본문의 숫자를 자주 변경했습니다. 에드윈 틸레(Edwin Thiele)는 *히브리 왕들의 신비한 수(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에서 마소라 본문이 올바르게 이해되면 비록 이해되지 않는 못하더라도 수세기에 걸쳐 정확하게 전달된 연대기 데이터가 정확하게 보존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연대기 동기화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북방 왕과 남방 왕의 통치를 동기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방금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합산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수백 년 동안 동기화가 해제됩니다. Edwin R. Thiele가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Jewish Kings* 라는 책을 집필 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치가 분명히 동기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적어도 본문의 해당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 70인역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것이 동기화의 명백한 문제라면 약간의 수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마소라 본문이 더 나은 본문을 보존해 온 것 같습니다. Gray *1, 2 Kings*, 페이지 45에 따르면 "칠십인역의 숫자는 악명 높은 복잡성의 연대기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단순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대 측정 체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냅니다. 일단 이해하면 데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러한 동기화의 어려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Thiele가 이에 대해 논의하기 전까지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열왕기의 본문을 평가하는 데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The Biblical Criticism: Historic, Literary and Textual, Zondervan, 1978* 에서 Bruce Waltke가 쓴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Old Testament"라는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방금 본문에 대해 언급했으므로 여러분도 최소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

계속해서 새로운 유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Thiele는 현재 초기 판보다 최신 판인 새 판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대규모 작업에 대한 일종의 간략하고 대중화된 요약물 썼습니다. 그것은 출판되었는데, 내 생각에 그것은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작품을 정말 잘 요약한 작은 문고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작은 문고판은 아직 인쇄되지 않았지만 더 큰 작품은 인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 지난 35년 또는 40년 동안 신명기적 역사 신학은 소위 "신명기적 역사"라고 불리는 것의 성격과 목적에 관해 완전하고 복잡하며 지속적인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쟁의 대부분은 이 역사를 쓴 역사가들의 신학적 목적이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적 역사"라는 용어를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용어를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높은 견해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마틴 노스(Martin Noth)에 의해 대중화되었는데, 이는 유배 기간에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작가가 있었다는 그의 생각입니다. 물론 늦은 신명기가 모세서가 아니라 포로 직전인 요시야 시대인 주전 621년의 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작가는 신명기 신학의 영향을 받아 신명기부터 열왕기하 끝까지 이어지는 전체 자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신명기는 그의 저작에 대한 서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나머지 작품에 반영하고 싶었던 그의 신학이 담겨 있으므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모두 이 신명기적 역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역사 전체를 농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서술한 역사서, 그것이 바로 신명기사이다 .

이제 결과를 고려해보세요. 그는 이 신학적 틀에 맞는 기록된 견해로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에 역사가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저술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록된 많은 내용을 이해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는 늦게 글을 쓰고 있으며, 자신의 신학을 이전 시대로 되돌려 놓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패턴에 일들이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견해는 성경으로서의 성경과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하여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신명기의 신학적 사상을 반영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떤 질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신명기가 시내산 언약에서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세 시대의 성경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수세기에 걸쳐 사건의 과정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포로 생활을 한 작가로 보지 않고 여호수아의 작가, 사사기의 작가, 사무엘의 작가, 열왕기의 작가로 보는 작가들은 모두 그 땅에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그 생각의 흐름.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시대의 역사를 구성하면서 일이 일어났고 일이 신명기에서 프로그램된 대로 일어났다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면 하면 욕이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세기에 걸쳐 일어난 일을 반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의 역사신학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열왕의 성격, 목적, 강조점 A. 저자는 언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강조점과 구조로 볼 때 열왕상하의 성격과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열왕기 상하를 숙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관찰이 입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 저자는 언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되는 주제는 국가의 복지가 모세 언약에 정의된 대로 언약적 의무에 대한 왕과 백성의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열왕기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열왕기에 올 때 당신은 왕국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언약적 관점에서 그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 주제는 국가의 복지가 왕과 백성의 언약적 의무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B. 언약 원칙에 기초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예언적 평가

나. 이러한 언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분석한 내용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을 유대 전통에서는 통칭하여 “이전 선지자서”라고 부릅니다. 이 책들은 언약 원칙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예언적 평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매우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전 선지자들”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를 분리되고 객관적인 종류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쓰기에는 항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는 어떤 기준에 따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가하고, 판단하고, 출발점이 무엇이든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열왕기 상하의 저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가할 때 이러한 언약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된 것 같아요.

예언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감받은 해석이라고 말하고 싶은 예언적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견해입니다.

역사는 참 신비롭습니다. 사건의 의의나 의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평가하려고 하면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것은 하나일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것일 것입니다.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신성한 말씀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영감받은 해석입니다.

다. 열왕기의 저자/편찬자의 언약적 입장

다. 열왕기상과 열왕기에 포함된 자료의 선택과 성격은 저자/편찬자의 언약적 관점과 관련하여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제가 저자/컴파일러라고 말하는 이유는 열왕기상하의 저자가 출처를 사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활용하고 모아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일된 방식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를 저자/컴파일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자의 목적은 현대적이고 세속적인 역사서술의 원칙에 따라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역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작가는 다양한 왕들의 의미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정치경제적 판단보다는 언약적 판단을 내린다.

예를 들어, 세속 역사가의 관점에서 보면 오므리는 북왕국의 가장 중요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6절(왕상 16:23-28)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시리아어에 언급된 오므리는 그가 북왕국에서 중요한 왕이 된 지 100년 후의 기록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오므리에게 많은 언론 보도를 하리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를 북왕국의 수도로 삼고 꽤 오랜 기간 지속되는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는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 6절의 저자는 이 부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의 중요한 역할이 열왕기하 14:23-29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북왕국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심지어 국경을 북쪽으로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저자에 관한 한 여로보암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로서의 요시야 또 다른 예로서, 저자는 요시야 통치의 첫 18년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그의 통치 18년에 시작된 개혁으로 그의 통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2:3이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주님께 다시 부르고 유월절을 지켰을 때의 개혁에 관한 두 장이 있습니다. 이집트, 바빌론, 앗시리아와 관련된 고대 근동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 시리아의 지정학적 권력이 바빌론으로 이동한 것은 요시야의 죽음과 관련된 것 외에는 무시됩니다. 요시아 시대에는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권력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의 전환은 아시리아의 지배에서 바벨론의 지배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이러한 권력 이동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것은 정치사에 관한 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킹스는 그것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킹스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암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어떤 이유에서든 킹스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네코를 막으려고 나갔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파라오 네코와의 전투에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제기된 이유입니다. 국제적, 정치적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가하려는 시도는 없습니다. 요시아가 바로느고를 반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심은 왕들이 언약에서 주목할 만한 일탈을 했는지, 아니면 언약이 주목할 만한 갱신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이 가장 주목을 받습니다. 요시아 같은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 개혁과 언약 갱신을 한 사람이 큰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면 므낫세나 아합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 역시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을 받는 왕들은 언약의 책임에 대해 눈에 띄게 호의적이거나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왕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므낫세의 예 열왕기하 21:1-19의 므낫세는 언약에서 벗어난 예입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되는 것은 그의 통치의 정치적 특징보다는 그의 언약 불순종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이집트에서 앗수르 정치에 관여한 것은 열왕기하에서 모두 함께 다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에사르하돈과

아슈르바니팔의 본문에서 므낫세가 언급된 아시리아 기록에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킹스가 므낫세의 통치를 다룰 때, 그가 국제적, 정치적 장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아시리아 기록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관련되었습니다. Kings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하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그가 여호와를 배반한 과정과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과정을 알려 줍니다. 그는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바벨론과 앗수르 사이에 바벨론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벨론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바벨론 포로와 그의 나중에 회개는 오직 역대하 33:10-13에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에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광범위한 대우를 받은 또 다른 통치자인데, 그 이유는 특별한 정치적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언약 충실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언약 갱신에 참여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방의 모든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분열 시대의 첫 번째 왕으로,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 행위를 따랐으며,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열왕기에 포함된 자료의 선택과 특성은 이러한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기본 개념이 있는 "C"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국 기간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평가가 아니라 언약적 평가입니다.

D. 저자는 예언과 성취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강조합니다.

D.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역사적 발전에서 예언과 성취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강조합니다. 예언과 성취가 많이 강조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들었고 그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게르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d) *의 신명기 역사 신학과 열왕기상하가* “육학 및 기타 수필의 문제”에서 지적했듯이, 예언과 성취는 열왕기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성취가 “[특정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의거하느니라” 또는 이와 유사한 성취 인용과 같은 표현으로 소개되는 11가지 사례를 나열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11번이나 접하게 됩니다. 열왕기에서 이러한 강조를 한 결과, 이 기간의 역사가 특정 사건들의 우연한 합류로 인해 발생한 우연의 혼란스러운 조합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이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의 역사적 운명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관점입니다. 역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이나 저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그런 종류의 순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의 시기를 거치면서 예언과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E. 선지자들은 언약의 사자로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마. 예언과 성취는 열왕기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맡은 선지자들 자신도 탁월하게 여겨진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백성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언약에 순종하게 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광범위하게 보도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마도 다른 두 명의 독신자보다 열왕기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유명합니다.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 엘리사의 사역에 관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언급된 다른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히야, 왕상 11:29; 스미야, 왕상 12:22; 예후, 열왕기상 16:1; 미가야, 열왕기상 22장; 홀다, 왕하 22:14; 요나, 열왕기상 14:23-27; 그리고 이사야, 열왕기하 19장. 여러분은 마지막 두 사람인 요나와 이사야만이 정경적 선지자, 즉 기록 선지자라고 불리는 자들이며, 그들의 이름을 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기록했을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보존되지 않았고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왕들을 언약의 길에 순종하도록 부르는 선지자의 역할이 크게 강조됩니다.

F. 다윗에 대한 주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순종/불순종이 뒤섞여 있음

F. 저자는 역사적 운명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의 언약 의무에 대한 순종 또는 불순종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와의 약속, 곧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의 광범위한 의미를 인식했습니다. 다윗의 집과 그가 자신의 이름을 두게 한 예루살렘성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헌신은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을 결정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등불”에 대한 언급에서 두드러집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의 참고 문헌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왕상 11장 36절: “이는 나라가 분열될 때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한 지파를 그의 아들(솔로몬의 아들)에게 주리니 이는 내 종 다윗 앞에 항상 등불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 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섰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 유다 왕위를 계승할 당시에 반역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주심으로 다윗의 가계를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 종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내 앞에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셨습니다.

15장 4절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다윗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느니라. 다윗은 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시다시피, 그 구절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비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3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자기 전에 행한 모든 죄를 범하였느니라. 그의 마음은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다윗에게 한 약속도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이 발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이 또 다른 것이라는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또한 다윗에게 주신 약속(왕상 8:20, 25; 9:5)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언급과 이것이 유다 후기 역사의 구체적인 역사적 발전에 미친 영향에도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1장, 12장, 13:11-32을 보라.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G. 다윗의 삶과 통치는 후기 왕들의 삶을

측정 하는 이상적인 기준이다 G. 열왕기의 저자는 다윗과 그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에 미친 영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애와 통치를 후대 왕들의 생애를 측정하는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를 읽었지만 여기서는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15장 11절을 보십시오. 같은 장에 나와 있는 15장 1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칭찬받는 일을 한 다음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윗을 비교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다윗이 이상적입니다. 그런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일반적으로 왕정 제도에 대해, 특히 다윗의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열왕기의 저자가 왕권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왕들이 지속적으로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그에 대해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가가 왕권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그가 다윗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 포로된 백성에게

언약을 어겨 굴욕을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는 목적 이 모든 요소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지만 A부터 G까지 합치면 1과 1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는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에게 그들이 굴욕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언약을 어긴 백성이었기 때문임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망명 중에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심판을 겪었고,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 매우 명확하게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있어서 기록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17:6-23에서 북왕국에 관해 이것을 봅니다. 그것을 살펴보자. 그것이 북왕국의 멸망이기 때문에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 북왕국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5, 6절에서 앗수르인들이 어떻게 와서 사마리아를 침공하고 그것을 함락시킨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앗수르로 사로잡았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관습 과

이스라엘 왕들이 도입한 관습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옳지 못한 일을 은밀히 행했습니다. 망대에서 요새화된 도시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뺨어 있는 모든 나무 아래에 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먼저 쫓아내신 민족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진노케 하는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경고하셨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율법을 다 지켜 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 선지자들이 그들을 성약으로 다시 불러오다

보세요, 그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언약으로 이끌고 율법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그들의 조상들 같이 목이 곧았더라” 그리고 15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와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를 버렸느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들은 그 율례와 언약을 버렸느니라.” 그들은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나라들을 모방했습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와와 명령을 버렸느니라.”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 그것이 문제이며, 열왕기는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설명합니다.

18절이 계속되는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장은 북왕국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가는 망명생활을 하고 있으며, 남왕국도 같은 일을 하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오직 유다 지파만 남았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아시다시피, 그것은 유다에게 내리는 것과 똑같은 심판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전한 규례를 따랐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버리셨습니다. 17장의 설명은 이것이 왜 북쪽에만 적용되지 않고 남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을 괴롭히시며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열왕기하 17:6-23에서 북왕국에 관해 이것을 봅니다. 우리는 방금 살펴본 두 구절의 열왕기하 17장 18-20절에서 남왕국과 관련하여 그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의 통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방 왕들

중 가장 악한 므낫세의 통치를 읽을 때, 여호와께서는 므낫세 때문에 유다의 포로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올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설정되었습니다.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너무 늦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서는 요시야 시대의 개혁이 너무 적고 너무 늦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왕하 23:26, 27 참조). 26절과 27절은, 『그러나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케 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타오르신 맹렬한 진노의 열기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더라』 고 말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고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자기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다는 사실은 유다가 끈질기게 그를 버렸을 때 자동적으로 유다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회고적 분석으로서,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와 포로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졌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자는 역사 전반에 걸쳐 다윗과의 약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결과 시내산 언약의 저주가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다윗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의 의미는 아직 밝혀지거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절망보다는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초로서 열왕기서에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von Rad는 그의 기사 "The Problem of the Hexateuch"에서 열왕기하 25:27-30에 관해 말합니다 .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Von Rad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분명히 여기에서는 엄격한 신학적인 용어로 아무 것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는 언급된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측정된 표시가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야훼가 원할 경우 더 많은 것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어쨌든 독자는 이 구절이 다윗의 계열이 돌이킬 수 없는 종말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책의 마지막에는 다윗의 노선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너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신은 모릅니다. 작가는 추측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이 강조점과 구조에서 볼 수 있는 왕상하의 성격과 목적”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게 전부였습니다.

2. 마틴 노스(Martin Noth)와 게르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d)의 신명기적 역사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강조점의 종류와 그것이 이 책의 목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

“마르틴 노스(Martin Noth)와 게르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d)가 옹호한 신명기 역사 접근 방식에 대한 간략한 논평.” 첫째, 마틴 노스(Martin Noth)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이 "신명기적 역사" 전체의 창시자였습니다. 마틴 노스(Martin Noth)는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전체가 포로기 시대의 신명기적 역사가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견해는 이 신명기의 역사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관심은 과거에 있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종말론적 차원을 보지 못했으며, 신명기 역사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져온 재앙을 넘어 계속될 수 있다고 단언하거나 암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완성된 역사입니다. 그는 열왕기하 25:27-30에는 미래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어떤 관점에서든 그러한 해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노스가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는 신명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신명기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은 어떻습니까?” 이는 주님께서 회개를 일으키실 것이며 그렇게 할 때 디아스포라가 돌아오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스는 신명기 30:1-4을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봅니다. 모두 크리티컬 시리즈의 작품입니다. 그런 구절이 이론에 맞지 않으면 항상 원래 거기에 없었다고 말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다윗의 약속과 열왕기 이야기에서 그 기능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나는 그것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지만 책 전체를 관통하는 다윗적 주제는 긍정적입니다. 물론 다윗의 가계에 나온 왕들은 이상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견고한 왕조를 주리라”는 사무엘하 14장 7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Von Rad & Heilsgeschichte [구원의 역사]

von Rad로 가봅시다. Noth와 von Rad는 모두 현대적이고 합리주의적이며 비판적인 학자이지 복음주의 학자는 아닙니다. 신명기적 역사가에 대한 Noth의 문학적 논제를 기대하는 동안 von Rad는 세계의 목적이나 목적에 대한 Noth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역사에 대한 폰 라드의 견해의 중심은 그가 신명기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즉 그의 용어의 신학입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선포된 후 나머지 부분에서 반복됩니다. 일어나는 일은 이 충분한 말의 효과이다. 역사를 *heilsgeschichte* , 즉 “구원의 역사” 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단어의 기능입니다 . *Heils geschichte* 는 '구원의 역사'를 뜻하는 독일어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정죄함(신명기 28:15 이하의 저주에서 볼 수 있듯이)과 해방함(삼하 7장의 메시아 약속에서 볼 수 있음)을 모두 나타냅니다. 둘 다 역사상 똑같이 효율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가 기본적으로 이 두 단어를 율법과

복음으로 보는 것이지 사건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습니다. 열왕기하의 끝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미래에 성취될 가능성이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역사는 노스의 경우처럼 부정적인 목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가문의 회복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Von Rad의 견해는 Noth의 견해보다 여호수아의 열왕기 내용을 더 잘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접근 방식에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강화할 수 있는 자료로서 우리에게 참되고 지속적인 가치를 빼앗아가는 수많은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Von Rad *historie* 와 *heilsgeschichte* 의 경우 두 개의 독일어 용어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Heilsgeschichte* 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의미에서 “구원의 역사”이고, *historie* 는 “역사”입니다. *Heilsgeschichte* 는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어진 역사, 고백된 역사입니다. *역사* 는 일어난 일의 의미에서 역사입니다. von Rad에게 있어서 *heilsgeschichte* 와 *역사* 는 급격히 단절되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역사*, 즉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약성서의 역사적 서술에서 발견한 고백적 *heilsgeschichte* 에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역사적 서술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어떤 신학자가 이스라엘의 과거의

신학적 중요성에 대해 믿었던 것과 이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역사가가 왕국 시대의 모든 왕에게 적용한다고 주장하는 제의적 통합에 대한 의무적 표준에 대해 말할 때, 폰 라트와 같은 사람의 견해는 실제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신명기가 예배의 중앙 집중화를 요구한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예배 장소는 오직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전체 시대의 모든 왕은 예배의 중앙 집중화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제 그들의 접근 방식은 요시아 시대와 그곳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배의 중앙 집중화 개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이 책은 요시아 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모든 합법적인 예배를 예루살렘에 가두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세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von Rad의 계획에 따르면 그것은 벨하우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 예배 장소에서 단일 예배 장소로의 움직임은 요시아 시대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가가 왕국 시대의 모든 왕에게 적용한다고 주장하는 제의적 통합의 필수 표준"에 대해 von Rad는 말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군주제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앙집권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원전 621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역사의 모든 시대에서 과거는 항상 후대에 구속력이 있는 기준의 주관적 적용 으로 인해 어느 정도 잘못 판단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역사 전반에 걸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후기 기준은 기준이 존재했던 시대 이전에 살았던 왕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준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시대에서 과거는 항상 후대에 구속력을 갖게 된 기준의 주관적 적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잘못 판단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이 인용문은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객관적인 정당성과 실제로 필요성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객관성은 보고되는 사건의 사실성이 아니라 신학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내 생각엔 그게 그 사람 문제인 것 같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이야기하려면 사실의 객관성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판결의 객관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법이 존재하기 전에 주관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일종의 객관성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신명기 역사가의 역사 기록의 명백한 결함에 대해

말합니다(*구약 신학*, p. 336).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기자는 더 이상 과거의 많은 사건에 대한 건전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두 왕국에 닥친 재난의 신학적 중요성에만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이끌어낸 것은 바로 이러한 관심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von Rad는 다양한 전통 자료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신명기 역사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종종 이 자료는 신명기의 기본적인 신학적 태도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언약과 관련된 자료는 전적으로 무성서적이라고 폰 라드는 말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역사가는 이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신명기 역사와 다윗 언약 그것이 신명기적 역사인 이유는 다윗에 관한 자료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왕권이 본질적으로 주님의 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왕권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관한 자료는 긍정적이어서 신명기 신학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 자체로 오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것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윗 언약의 내용은 완전히 비신율적이지만 신명기 역사가는 이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 사이에 근본적인 갈등이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며, 각각은 서로 다른 전통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합니다.” 이것이 von Rad의 견해입니다.

여기에는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지 다른 전통이 있으므로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는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확고히 확립된 전통을 취하면서 신명기 기자는 그의 신학적 관점이 유래한 신명기의 고유한 환경에서 바로 벗어났습니다. 신명기 기자가 자신의 전통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은 신명기 전통이 여기에 근거를 둘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매우 강력한 메시아적 개념이 침입하여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러한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작업하는데 둘 다 너무 강해서 다윗적인 것들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지만 신명기 신학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von Rad의 견해입니다.

열왕기를 통한 여호수아의 역사적 서술의 역사성에 대한 폰 라드의 부정적인 태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한 그의 강조가(그리고 그는 종종 그것에 대해 이야기함) 뭔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보고된 바와 같이 현실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신명기 신학자의 신학적 구성이다. 폰 라드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실제로 신명기 신학자의 구성에 불과합니다.

Vannoy의 역사 분석과 Heilgeschichte 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능에 대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많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로부터 실제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성. *heilsgeschichte*, 즉 “고백적 역사”와 역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의미의 역사 사이의 이러한 구분은 폰 라드가 구약 문학에 접근하는 데 있어 주요 문제 *입니다*. 비록 폰 라드의 구약성서에 대한 신학적 분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로부터 그것을 모아 폰 라드의 체계가 역사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 사이에 조장하는 본질적인 갈등을 피하는 접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폰 라드에게 역사적 진실과 종교적 진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수준에서 작용합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적 모델은 종교적 진리가 역사적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합니다.

그러나 von Rad는 신학적인 구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포로 생활을 했던 작가에 대한 역사적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 작가는 그가 역사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했다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백된 역사이다. 그것은 신학적인 구조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Nathan Levad, Peter Lee, Moriah O'Neil, Valerie Plichta, Erika Sanderson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Charaliz Isaac 및 Peter Story 편집자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

